

Prologics Project 2024

PHYSICS : FINAL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학 I 최종 점검 프로젝트

열역학 • 특수상대성이론 • 비역학

Prologics 지음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물리학 I 의 약점 체크

**2024 물리학 I 의 6, 9 평 기조를 보았을때 기존의 역학 부분의 킬러는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비역학 부분에서 준킬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학습함으로써 헛갈리는 선지가 없게,

물리학 I 의 최종 마무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이 학습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Prologics의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Final 자료가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Index

- 열역학
- 특수 상대성 이론
- 비역학

열역학

$$PV = NkT \rightarrow PV \propto NT$$

$$U = \text{기체의 Total } E_k \propto NT \propto PV$$

PV/T = 일정함을 이용하여 풀이하기

A를 피스톤의 단면적, F를 힘, P를 압력이라고 하자.

$$F = PA \quad \Delta V = A \times \Delta S$$

$$W = F \times \Delta S = PA \times \Delta S = P \times \Delta V$$

이동 피스톤 -> P 일정 금속 피스톤 -> T 일정

$$e(\text{열효율}) = (W/Q_{in}) = 1 - (Q_{out}/Q_{in})$$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하여 e가 1 이상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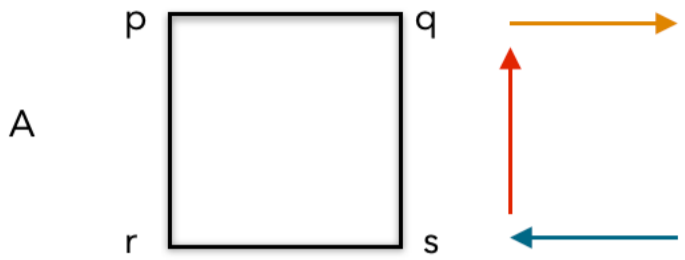
열역학 문제를 풀이시에는 Q, U, W 로 도표를 작성하여 풀이하도록 하자.

등온 과정시에는 U 칸을 0으로 기입하자.

등적 과정시에는 W 칸을 0으로 기입하자.

단열 과정시에는 Q 칸을 0으로 기입하고 U와 W는 부호가 반대며, 절댓값이 같은 양을 기입하자.

특수 상대성 이론



B C D 는 각각 화살표 색깔에 대응하여 생각하자.

A의 관성계에서, p,q,r,s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자.

(p,q,r,s는 A의 관성계에서 정지한 정사각형의 꼭짓점이며, A에 대하여 **B C D** 만 움직인다.)

	먼저 발생한 사건	후에 발생한 사건
B	Q, s	P, r
C	P, q	R, s
D	P, r	Q, s

위의 도표와 같이 사건이 발생한다.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하여 어떤 관성계에서든 빛의 속도는 동등하다.

A가 바라보았을때, B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면,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른다.

비역학

상대론적 질량은 물체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질량-에너지 동등성에 의하여 쌍생성과 쌍소멸 둘다 발생하는 것을 기억하자.

쌍생성 : $\Gamma + H \rightarrow e + p$ (에너지- \rightarrow 질량)

쌍소멸 : $e + p \rightarrow 2\Gamma$ (질량- \rightarrow 에너지)

* Γ 는 감마선, H는 수소 원자핵, e는 전자, p는 양성자이다.

질량수가 증가하면 생성된 입자의 양성자 수가 동일해도 핵융합이다.

$E = h \times f$ $c = \lambda \times f$ 식을 이용시에,

-> $E = h \times (c/\lambda) = (hc/\lambda)$ 로 정리 가능하다.

도체에서는 원자기띠와 전도띠가 "겹친다".

도체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금속 양이온의 열운동이 증가하여 자유전자 이동을 방해한다.

-> T 상승시에-> 도체 σ 감소, 반도체와 부도체 σ 증가 (σ 는 전기전도도 기호이다.)

$$\sigma \propto A \propto (1/l) \propto (1/R)$$

(σ 는 전기전도도, A는 단면적, l은 길이, R은 저항이다.)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이 증가할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커지고,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Si, Ge +	반도체
B, Al, Ga, In	p형 반도체
P, As Sb,	n형 반도체

빛의 세기 \propto 결합수

다이오드의 도핑 농도 증가 -> 빛의 세기 증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 : **전기로 자기장을 발생**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예시: 직류 전동기, 자기 부상 열차, MRI, 하드디스크, **스피커**, 전자석 기중기)

전자기 유도 : **자기장으로 전기를 발생**

+(전자기 유도의 예시 : 발전기, **마이크로폰**, 금속탐지기, 전기 기타, 무선 충전기, 교통카드)

상자성체 : 외부 자기장 제거시에 자기장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배열 (반자성체는 사라짐)

파동에서 매질은 **제자리에서만 진동**, 이동하지 않는다.

빛과 소리의 속도 : 뜨거운 공기 > 차가운 공기 (공기중에서 진행시에 진행방향이 느린쪽으로 휜다.)

+(진행방향에서 볼록한 쪽이 가르키는 부분이 더 빠른 부분, 즉 빛과 소리에 한하여 뜨거운 동기가 있는 부분이다.)

가는줄이 두꺼운 줄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물결파의 속력 : 깊은 곳 > 얕은 곳 ->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파면이 해안선과 일치

전반사를 이용하는 물체 : 쌍안경, 잠망경, 내시경, 빗물 자동 감지

전자기파의 속력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다.

전자기파는 매질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며, 횡파이다.

X선 -> **고속의 전자를 충돌시켜 발생**

마이크로파 -> 전기기구에서 **전자의 진동**으로 발생

라디오파 -> 도선 내부에서 **가속되는 전하**에 의하여 발생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되며, 전자기파 중 라디오파가 회절이 제일 잘된다. 따라서 장애물도 수월하게 통과한다.)

$$E_{kmax} = hf - hf_0 = hf - W$$

$2mEk \times \lambda^2 = h^2$ 이 식이 일정함을 이용하여 드브로이 파장 문제를 해결하자.

+($v=f\lambda$ 식은 물질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같이 질량이 큰 물질도 파동성이 있지만, 질량이 너무 커서 파동이 작은 관계로, 관찰하기 어렵다.)

CCD: 전하를 이동시키기 위해 "전기력"을 이용함.

	TEM (투과전자현미경)	SEM (주사전자현미경)
방출되는 전자를 관측하는가?	No	Yes
현미경 그림에서 전자선이 시료를 투과하는가?	Yes	No
시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최대한 얇게	표면 금속 코팅

분해능 : TEM > SEM